

순위	구분	평균생산비	비중
17위	소농구비	8,364	0.1%
18위	기타요금	7,624	0.1%
19위	수리비	3,365	0.0%
합계		12,372,538	100%

축성 딸기의 최근 5개년(2011-2015) 동안 19개 생산비 항목 중 생산비 1위는 자가노력비이며, 2위 제재료비, 3위 종자/종묘비, 4위 고용노력비, 5위 영농시설상각비, 6위 광열동력비, 7위 무기질비료비 순이다. 기준 상위 7개 항목의 비중은 전체의 85.5% 이상이다.

<표 3-3-13> 최근 5개년 기준 생산비 세부항목의 비중 : 딸기(축성)

(단위 : 원/10a)

순위	구분	평균생산비	비중
1위	자가노력비	3,807,875	27.8%
2위	제재료비	2,261,103	16.5%
3위	종자/종묘비	2,031,565	14.8%
4위	고용노력비	1,288,254	9.4%
5위	영농시설상각비	1,029,965	7.5%
6위	광열동력비	941,193	6.9%
7위	무기질비료비	361,152	2.6%
8위	대농기구상각비	341,189	2.5%
9위	유기질비료비	315,140	2.3%
10위	임차료	299,052	2.2%
11위	토지자본용역비	258,198	1.9%
12위	고정자본용역비	238,024	1.7%
13위	농약비	224,637	1.6%
14위	유동자본용역비	156,309	1.1%
15위	수선비	83,608	0.6%
16위	위탁영농비	55,153	0.4%
17위	기타요금	8,118	0.1%
18위	소농구비	7,009	0.1%
19위	수리비	5,379	0.0%
합계		13,712,923	100.0%

반축성 딸기의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항목의 연평균 변화율 산출 결과(2001-2015) 유기질비료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농시설상각비와 광열동력비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3-3-14> 딸기(반축성) 생산비 기준 상위 7개 세부항목의 변화율

순위	세부항목	최근 5개년 평균		변화율	
		금액(원)	비중	연평균	2014 vs. 2015
1순위	자가노력비	2,612,803	28.2%	1.1%	-15.6%
2순위	제재료비	1,684,804	18.2%	2.1%	-7.2%
3순위	종자/종묘비	1,318,951	14.2%	5.3%	-11.5%
4순위	고용노력비	890,993	9.6%	2.7%	-0.8%
5순위	영농시설상각비	674,469	7.3%	11.6%	15.0%
6순위	광열동력비	388,938	4.2%	13.8%	-29.0%
7순위	유기질비료비	311,118	3.4%	-1.4%	-19.9%